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 재현품 제작과 의의

Restoration Production and Review of
Knives with Decorated excavated in
Songje-Ri, Tomb No1, Naju.

이 건 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강 민 정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II. 유물 출토정황과 성격

III. 비교자료

IV. 복원과 재현품 제작

V. 고찰

VI.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출토 장식도자 재현품 제작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연구 과정은 첫째, 장식도자의 출토성황과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관찰 내용을 정리. 둘째, 다른 삼국시대 장식도자를 비교하여 제작에 참고했던 선별자료를 제시. 셋째, 복원도와 설계도면의 작성과정과 제작과정 소개. 넷째, 완성된 재현품에 대한 검토와 고고학적인 고찰 순으로 진행하였다.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도자는 공주 무령왕릉과 고성 송학동 IC호분, 일본 간논야마 고분 출토품과 비슷한 구조이다. 특히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의 형태를 참고하여, 제작유물의 결실부위를 복원할 수 있었다. 재현품의 본격적인 제작은 부품을 먼저 만들고, 조립하여 완성하였다. 사용한 주요 제작 기법으로는 디이포밍, 각접기, 선뽑기(인발), 문양찍기(스탬핑)가 있다. 완성된 재현품은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와 재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도 칼자루 금구뿐만 아니라 칼집 고정금구에 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일본 간논야마 장식도자의 고리 1쌍은 이들 장식도자를 서로 동일한 양식으로 판단할 근거로 생각된다.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과 공주 무령왕릉(왕) 출토품과 같은 장식도자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유행했던 장식도자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두 유구에서 출토된 장식도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연달아 제작하여, 당시 장인에 대한 정치·경제적 후원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하였다.

주제어 : 삼국시대, 장식소도, 제작기술,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공주 무령왕릉

I . 머리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의 복원과 재현을 목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2022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의 장식도자 제작기술 복원 학술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이다.

재현품 제작은 원래 유물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유물의 재질·구조, 장인의 기법 등을 포괄한 제작기술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이다(이현상 외 2018; 塚本敏夫 2021). 이 연구는 보존과학 또는 실험 고고학의 일종으로 대상 유물의 재질과 구조에 관한 관찰과 과학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복원한다. 그 다음 복원 안을 바탕으로 숙련된 제작자의 경험과 기법에 의거하여 작업과정을 설계하고 재현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비록 재현품 제작 연구는 과거의 행위와 반드시 일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 유물의 해석에 있어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조대연 2020: 50).

제작 대상인 나주 송제리 1호분 도자는 은과 금으로 만든 여러 장식이 부가된 장식도자이다. 장식도자는 금·은 등 귀금속 장식을 베푼 소도[도자](藤村翔 2013: 321)로 장식대도(金洛中 2006: 55; 禹炳喆 2015: 105)의 개념과 대응한다. 상위 계층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장식도자는 귀금속 재질의 복합적인 장식이 확인되므로, 이 유형의 장식도자를 왕이나 귀족들이 패용했던 제품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노태호 2014: 118~119).

그러나 장식도자에 관한 연구는 장식소도가 출토된 고분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 상황은 저조한 편(藤村翔 2013: 321)으로 출토 수량이 적고, 크기가 작아 훼손이 심하면 그 형태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까닭에 장식도자의 병두금구 형태가 같은 장식대도를 함께 연구하여 연구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였다(김우대 2012).

이번 연구는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재현품 제작과정을 다룬 논문으로 제작과정과 그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출토정황 검토,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관찰 내용 정리, 비교가능 유물에 대한 선별과 조사, 대상유물의 복원과 재현품 제작 과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나아가 마한·백제, 신라, 가야 장식도자의 발전과정 속에서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특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Ⅱ . 유물 출토정황과 성격

1. 출토정황

나주 송제리 고분군은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산 13번지에 위치한 고분이다. 1987년도에 도굴된 상태로 알려진 후, 2000년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실측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8~2020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이전에 조사된 고분 1호분 외에 총 5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장식도자가 출토된 1호분은 지름 20m, 높이 3m 이상을 쌓아 축조한 고분이다. 고분의 매장시설은 궁륭식 천장 구조의 횡혈식 석실분으로 석실은 분구 축조와 함께 동시에 축조되었다. 석실의 현실은 소형 할석을 바닥석으로 깔아놓았고, 바닥석 상면에서 장식도자와 함께 관식, 허리띠 장식[대장식구], 청동잔, 철도, 철검,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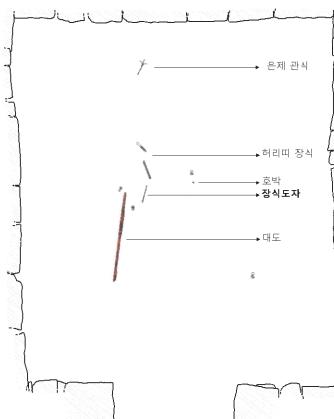
장식도자는 현실 중앙에서 은제 대장식구, 철검, 철도 사이에서 확인되었다(도면 1-①). 자세한 위치는 철도 자루[슴베]의 동측에 해당되어 피장자의 허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장식도자는 분리되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 관련된 금구들이 확인된다. 각 장식도자의 편들은 반경 15cm 내외에서 확인되어, 원래부장된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칼집[鞘部] 혹은 칼자루[柄部] 장식으로 추정된 금제 장식은 근처 흙에 대한 물체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유물의 상세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유물 성격

접합한 장식도자는 [도면 1-③]과 같고, 확인된 각 금구의 위치와 부위별 명칭은 [도면 1-②]와 같다. 분석결과 칼은 철로 만들고, 금구와 장식은 은과 금으로 제작되었다. 부위별 특징은 실물과 CT영상으로 확인하였고,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부위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도면 2). 칼의 앞쪽에는 수축된 상태로 8각 단면의 칼집이 남아 있다. 그 끝에는 여러 방향에서 잘라내어 형태를 만든 흔적이 확인된다. 칼집과 병연금구 바깥쪽 면, 초구금구 안쪽에서 칼집 바깥쪽 면을 칠했던 옻칠 편이 남아 있다.

① 주요 유물 출토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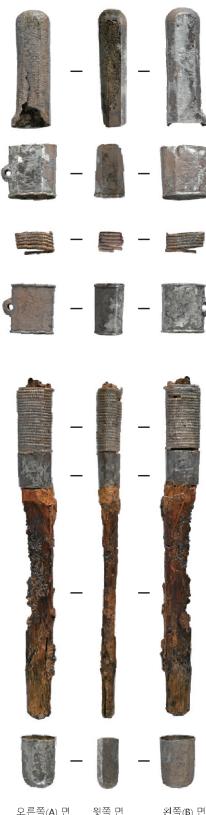


② 장식도자 부위별 명칭(보존처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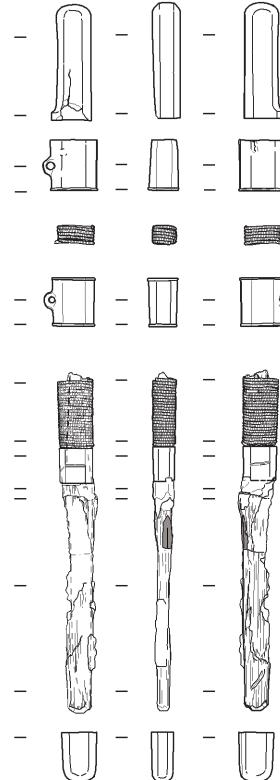


③ 장식도자 사진, 도면, CT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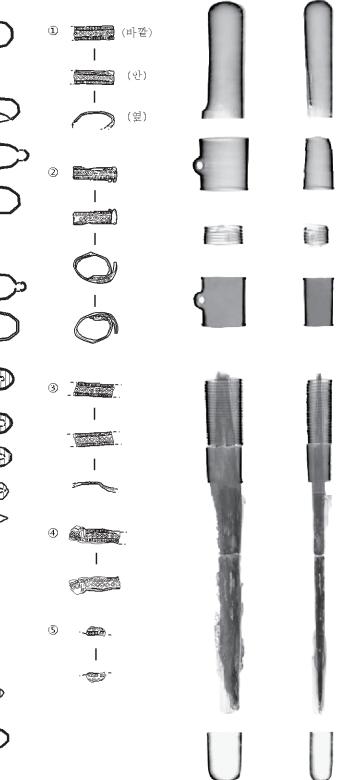
사진



실측도면



CT사진



오른쪽(A) 면 뒷쪽 면 권쪽(B) 면

[도면 1] 장식도자 출토위치, 부위별 명칭, 장식도자 사진 · 도면 · CT



[도면 2] 장식도자 칼, 병두금구, 병부금구, 병연금구



[도면 3] 장식도자 초구금구, 초부장식(은선), 병부 · 초부장식(금고리)

병두금구, 추정 병부금구, 병연금구, 초구금구, 초미금구는 단면이 팔각형인 통형이다. 이 금구는 두께 0.5mm 내외의 은판으로 만들었다. 병두금구의 바깥쪽에는 은땀 등으로 메워진 ‘十’형의 틈이 확인되고, 초미금구 안쪽에는 끝부분을 접어서 마감했다.

[표 1] 장식도자의 특징

부위	검토 사항	특징	비고	부위	검토 사항	특징	비고	
칼 크기	형태	편관형, 칼날단면: 이등변삼각형		초구 금구 제작 기법	형태	통형, 8각 단면		
	잔존길이	14.2cm			소재	은		
	부위별 길이	칼날: 10.1cm 슴베: 4.1cm			크기(평면기준)	2×1.8cm		
	형태	8각 단면			몸체	각접기(정, 흄 흔적), 단접용접, 땜질		
	소재	나무			고리	있음(타출과 투공)		
	옻칠 유무	유(추정)			은띠	있음		
병두 금구	형태	통형, 상부 원두형, 8각 단면, 하단 돌출			광쇠 방향	가로 방향		
	소재	은			형태	통형, 8각 단면		
	크기(평면기준)	4.9×1.7cm			소재	은		
	제작 기법	몸체			크기(평면기준)	1.4×2.1cm		
	광쇠 방향	가로 방향			제작기법	각접기(추정)		
	형태	통형, 8각 단면			광쇠방향	가로 방향		
병부 금구 (추정)	소재	은		초부 · 병부 장식	형태	고리형		
	크기	2×2.18cm			소재	금, 은(추정)		
	제작 기법	몸체			문양 종류	새김눈, ○, 긴 선형		
		고리			속심유무	유, 가능성 높음		
		은띠			크기(평면기준)	1.2×~3.2~3.6cm		
		광쇠 방향			제작기법	스탬핑, 은지금장(추정)		
병연 금구	형태	통형, 8각 단면			형태	선형		
	크기	1.4×1.4cm			소재	은		
	제작 기법	몸체			제작 기법	문양 새김		
	광쇠 방향	가로 방향				스탬핑		
	기타	‘ ’자형 선각, 칼자루 끝 마감	제작 기법	김는 방법	1줄, 나선형			

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병부·병연·초구금구의 안쪽에는 각이 있는 부위를 따라서 점열이 확인되어, 점을 부위에 1열로 점을 찍어 홈을 내고 바깥쪽에서 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병부·초구금구 하단의 고리에는 직경 0.3cm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고리는 금구 안쪽에서 타출하여 제작하였다. 두 금구의 입구 쪽에는 0.1cm 정도의 은띠를 두르고 있다. 이 은띠는 점었거나, 붙였던 것으로 보이며 병부금구는 한쪽, 초구금구는 양쪽 입구에서 확인된다. 이 통형의 금구 바깥쪽 면에서 관찰된 연마 또는 광쇠 흔적은 [도면 1-③]을 기준으로 가로방향으로 확인된다.

초부장식으로는 폭 0.12cm, 두께 0.05cm 정도의 은선 1줄을 나선형을 감아 제작하였고, 바깥쪽 면에는 연달아 새김눈[刻目] 장식을 하였다. 새김눈 장식의 단면은 마치 톱니와 같이 일정하다. 은선의 시작점 또는 끝점으로 추정되는 ‘ㄱ’자형으로 꺾여 있는 고정 부위가 확인된다.

초부·병부장식으로 추정되는 고리형태의 금구가 5개 편으로 확인되었다. 금고리 위치는 초미금구 근처에서 확인된 ①번 편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 각 금고리는 동일한 형태의 문양이 찍혀 있으며, ②번 편으로 원래 형태를 알 수 있다. 금고리의 안쪽에는 양끝을 점었던 부위, 잘 접기 위한 칼집흔적이 남아있다. 안쪽면의 점은 부위와 [도면 3-③]과 같은 부식물로 보아 원래는 지판으로 볼 수 있는 금속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 각 부품은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 있지만 복원하기 위한 목제 칼집·칼자루 형태와 크기, 각 금구들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단서를 확인하기 어렵다.

III. 비교자료

1. 삼국시대 장식도자 비교자료

[도면 4]는 마한·백제, 가야, 신라권 장식도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확인하고자, 출토된 유구의 각 연구자별 편년을 참고하여 시기별로 분류한 도면이다. 비교자료는 각 금구의 형태와 구성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다. 금구 구성으로 병두·병연·초구·초미금구를 갖추거나, 기타 초부금구, 병부·초부장식이 확인된 장식도

* 점선은 실선과 같이 연대적 선후관계를 표현하되,
유구간 분기별 편년이 모호한 유구의 경우에 사용하였다.

연대	문화권 마한·백제	가야	신라	비고
6C 1/4				
6C 2/4				
6C 3/4				
6C 4/4				
7C 1/4 ~ 7C 2/4				<p>연구자별 유구 편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한·백제: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오동선 2022 : 176) 광주 무령왕릉(무령왕릉 출토 지석) 나주 대안리 4호분(우진영 2023 : 33) 나주 복암리 3-7호 석실(오동선 2022 : 248) 익산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김상현 2014 : 59) ■ 신라: 각 고분(김용성 1998, 김두철 2011, 흥보식 2014, 최병현 2017) - 금관총의 상한 연대를 5세기 3/4분기까지 올려보기도 한다. ■ 가야: 합천 옥진 M11호(박진수 2010; 김두철 2011, 흥보식 2014; 오동선 2022) 고성 송학동 1C호분(김준식 2020)

[도면 4] 마한·백제, 가야, 신라권 장식도자 비교자료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문화권별 장식도자의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칼자루와 칼집을 대상으로 칼과 병부의 길이 비율, 칼집 길이에 따른 유형, 또 모자도와 같이 자도 부착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각 문화권별 삼국시대 장식도자들을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삼국시대 장식도자 특징 비교

	마한·백제	신라	가야	비고								
6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대안리 4호분(소재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무령왕릉, 나주 송제리 1호분 출토품과 유사 ■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도자 초기형 ■ 공주 무령왕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모자도 양식 - 칼자루 B유형 - 칼집 A·B유형 - 병부 금구(有) - 일본 간논야마고분 출토품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남대총 북분 허리띠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도자(초기형) - 모자도 양식, 대도의 영향 - 패용구 ■ 금관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금금구=패용구, 연결고리 잔존 - 칼집 B유형 <p>[6세기 2~3/4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령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대도의 축소형 ■ 서봉총, 양산 부부총, 경주 황오동 52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도 양식 - 초부 금구(有): 패용구 혹은 끈목 등 장식 연결 - 칼집 A, 칼자루 B유형 ■ 경주 보문동 합장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도 양식 - 초부금구: 칼집금속판 고정용 못 구멍 <p>※ 백제 장식도자와 비교 (칼집 A유형, 칼자루 B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 월산리 M4호, 합천 옥전 M6호, 함양 백천리 6호분, 남원 청계리 1~2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도 양식의 도자(참고자료) ■ 합천 옥전 M4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도 양식 - 초부금구(有) - 칼자루 A유형? - 부조 장식 <p>[6세기 2~3/4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 송학동 I C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모자도 양식 - 칼자루 B유형 - 칼집 A·B 유형 - 초부금구(有) ■ 합천 옥전 M11호분 병두 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무령왕릉(왕)과 유사 <p>※ 6세기 2/4분기 이후 백제 장식도자와 유사성이 높아짐</p>									
7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B유형 ■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 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B유형(주정) - 장식도자 2점 이상으로(추정) <p>※ 고려시대 도자(장도)와 유사</p>	<p>※ 참고 칼집과 칼자루 유형별 특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칼집 A형</td> <td>칼집 길이가 짧은 경우(초미금구에서 병연금구까지)</td> </tr> <tr> <td>칼집 B형</td> <td>칼집 길이가 긴 경우 (초미금구에서 병부 혹은 병두금구까지)</td> </tr> <tr> <td>칼자루 A형</td> <td>칼자루가 칼의 길이가 짧을 경우</td> </tr> <tr> <td>칼자루 B형</td> <td>칼자루가 칼보다 길이가 긴 경우</td> </tr> </table>	칼집 A형	칼집 길이가 짧은 경우(초미금구에서 병연금구까지)	칼집 B형	칼집 길이가 긴 경우 (초미금구에서 병부 혹은 병두금구까지)	칼자루 A형	칼자루가 칼의 길이가 짧을 경우	칼자루 B형	칼자루가 칼보다 길이가 긴 경우		
칼집 A형	칼집 길이가 짧은 경우(초미금구에서 병연금구까지)											
칼집 B형	칼집 길이가 긴 경우 (초미금구에서 병부 혹은 병두금구까지)											
칼자루 A형	칼자루가 칼의 길이가 짧을 경우											
칼자루 B형	칼자루가 칼보다 길이가 긴 경우											

1) 마한·백제권

초기 장식도자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 도자로 나무로 만든 칼자루를 조각하여 만든 병연·병부금구, 병부장식(선형)¹⁾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출토된 삼엽환두도는 신라 모자도의 자도 형태와 유사하다.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 4점 가운데 3점은 병부금구를 포함한 금구 구성과 형태에 있어 나주 송제리 1호분 출토품과 매우 흡사하다. 금구의 세세한 장식과 초구금구의 하단에 고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칼과 칼자루의 비율, 칼집의 길이를 참고할 자료로 판단된다. 참고로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는 일본 간논야마고분에서 장식도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권오영 2005).

이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에서는 환두 안으로 금선을 꼬아서 만든 운문(雲文)을 장식한 장식도자 1점과 무두(無頭) 형식의 장식도자 5점이 확인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67). 현재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보존처리 중으로 정확한 형태와 수량은 알 수 없지만, 병두를 제외한 병부를 초부 외장(유기질 판)²⁾이 감싼 유형이다. 이 초부 외장의 안쪽에서 확인된 금박은 병부를 장식했던 도금의 일부로 추정된다.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 석실 장식도자도 흑색 외피 안쪽에서 금박이 관찰된다. 이 금박으로 보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과 같이 흑색 외피는 초부의 외장으로, 내부 금박은 병부 장식의 도금으로 추정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출토 장식도자를 참고하여 구조와 소재에 대해 과학적 분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반한 병부장식(은선)과 패용구는 다른 장식도자의 부품으로 추정되어 2점 이상의 장식도자가 부장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마한·백제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는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 왕비 A·B)와 같이 칼집 길이가 짧은 장식소도로 판단된다.

한편 공주 무령왕릉(왕비 C)·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장식도자와 같은 칼집이 긴 유형은 고려시대 장식도자와도 연관되어 있다(도면 6). 이런 유형의 장식도자는 중

1) 현재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 장식도자는 망실된 상태이나, 동반한 포크[二支]형태의 도구로 병부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2) 도자 탈락편(추정 칼집)의 소재도 케라틴이 주요 성분인 유기물로 제작된 것이 확인되었다. 종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소재는 나무나 금속판이 아닌 동물의 뼈, 뿐, 껍데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강소영 외 2014: 59).



[도면 5] 모자도 비교자료와 나주 신촌리 9호분 乙관 도자



[도면 6] 고려 장식도자와 조선 환도



[도면 7]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석실 장식도자 칼집 내부 금박

국 송 · 요나라에서 확인되지 않아, 자체 제작 또는 다른 외부 영향이 고려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41). 고려시대 장식도자의 이 유형은 외부의 영향도 있겠지만 삼국시대 장식도자로부터 전승되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신라·가야권

신라권의 장식도자는 자도가 부착된 모자도 양식이며 마한 · 백제권 장식도자의 금구 형태와 장식적 요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기 장식도자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장식에 매달린 모형 장식도자로 추정할 수 있다. 금관총 출토 장식도자는 황남대총 북분의 모형 장식도자와 같이 칼집이 긴 유형으로, 초구금구에 장식도자를 매달 수 있는 패용을 위한 구멍이 있다. 이 구멍에는 연결고리 편 일부가 확인

되어, 동반한 장식도와 같이 초부금구에 패용을 위한 연결고리를 걸었던 구멍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관총 장식도자는 병부에 은선 1줄을 촘촘하게 감았다(도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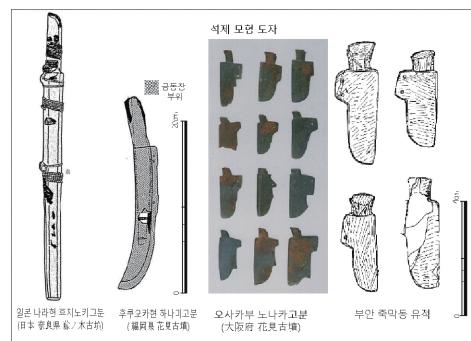
이후 단계의 양산 부부총, 경주 황오동 52호분 서봉총 장식도자에서는 횡방향의 구멍이 뚫린 병부금구가 확인된다. 이 금구는 패용 또는 끈목[다회] 등의 장식을 달았던 구멍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장식도자는 칼집의 길이가 짧은 유형이기 한다. 이전 단계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식도자는 경주 보문동 합장분 출토품이 있지만 초구금구에 달린 구멍 부위에는 외판을 고정하기 위한 못이 관찰되어 금관총 출토품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신라 장식도자의 칼집 형태와 길이는 후쿠오카현 하나미 고분 장식도자와 같이 당시 가죽제 칼집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9).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가죽제 칼집의 형태는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일본 고훈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석제 모형을 참고할 수 있다.

가야권 초기 도자에서는 신라 모자도의 양식을 따른 개체들이 확인된다. 합천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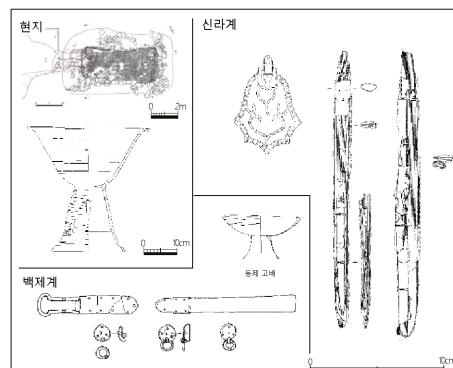
[도면 8] 흉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의 장식도자 장식



[도면 9] 일본 장식도자와 석제 도자 도형



[도면 10] 가야지역 출토 주요 도자



[도면 11] 고성 송학동 고분군 IC호분 출토유물의 계통

전 M4호분 장식도자(A)는 자도 1점 · 미상 봉형구 2점, 장식도자(B)는 자도 1점이 부속되어 있어 신라권 장식도자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칼자루에는 부조 장식이 된 병부금구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합천 옥전 M11호분에서는 나주 송제리 1호분 · 공주 무령왕릉(왕) 장식도자와 같은 형태의 은제 병두금구가 확인되었다.

고성 송학동 IC호분 장식도자는 계통을 추정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칼자루 비율이 짧고, 병부금구가 있으며 병두 · 병부 · 초미금구에는 입구 한쪽에 띠장식이 확인되어 복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병부금구에는 둑근 고리 1개가 부착되어 있다. 가야권의 빠른 시기의 도자는 모자도 계열이 확인되어 신라권과 동질성이 확인된다. 이후 도자의 전체적인 구상은 백제 장식도자의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개 금구의 형태는 백제와 신라와 구분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 신라, 가야 장식도자로 보아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는 백제계 장식도자로 생각되고, 신라 · 가야권 장식도자와 형태와 구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2. 선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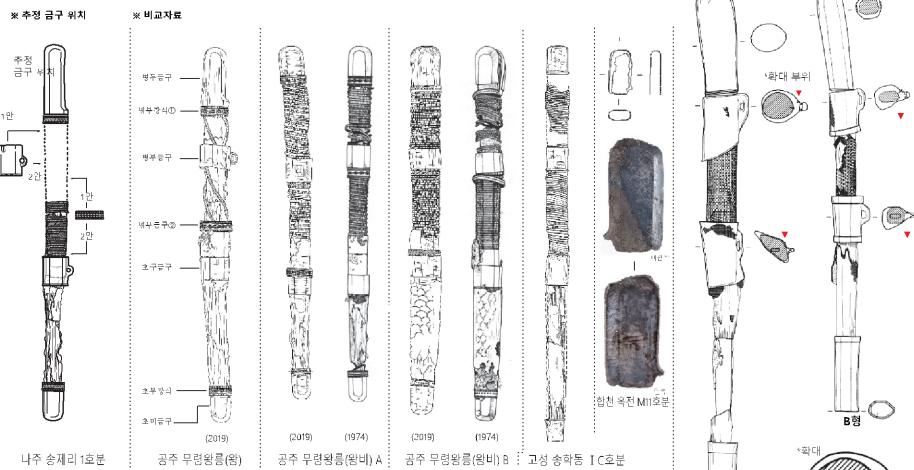
금구와 각 금구 구성과 형태의 유사한 장식도자는 [표 3, 도면 12]와 같다. 금구 구성과 형태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개체는 공주 무령왕릉(왕, 왕비 A · B), 고성 송학동 IC호분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이들 장식도자는 칼자루가 칼보다 길고, 칼집이 짧은 유형이다. 그밖에도 일본 군마현 간논야마고분 장식도자는 병부금구와 초구금구

[표 3]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소도와 비교자료 간 유사성 (○: 유사, △: 부분 유사, ×: 다름)

비교자료	금구 구성	금구 형태						비고
		병두금구	병부금구	초구금구	초미금구	초부장식 (은선)	초부 · 병부 장식(금고리)	
공주 무령왕릉 (왕)	○	○	△ (고리 유)	△ (고리 무?)	○	×	×	
공주 무령왕릉 (왕비A)	○	△	×	△ (고리 무)	○	△ (금 · 은선 사용)	△	
공주 무령왕릉 (왕비B)	○	△	×	△ (고리 무)	○	○	○	유사
고성 송학동 IC호	○	×	×	?	?	○	×	
합천 옥전 M11호	-	○	-	-	-	-	-	
(일본) 群馬縣 觀音山古墳	△	△	○	○	×	×	×	



① 장식소도 비교자료



② 금고리 참고자료



[도면 12] 장식도자와 금구리 비교 · 참고 자료

에 구멍이 뚫린 고리가 1개씩, 즉 고리 1쌍이 확인된다. 이 1쌍의 고리는 ‘勾狀環’으로 불리며, 끈을 각 고리에 연결하여 패용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고리는 칼날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리에 끈을 달아 칼날이 위로 향하게 매다는 개체로 보고 있다(渡辺康弘 1986: 115; 藤村翔 2013: 323)

초부·병부장식으로 추정되는 금고리의 참고자료는 [도면 12-②]와 같다. 기존연구에서 병연 3류(禹炳喆 2015: 114)에 해당하는 금구로 무령왕릉(왕비 B),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함평 마산리 표산 1호분 장식도자 등과 합천 옥전 M11호의 장식 대도에서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미야자키현[宮崎県] 모찌다[持田] 26호분, 나라현[奈良県] 후지노키고분[藤ノ木古墳] 장식대도 등에서도 확인되어 분포범위가 넓은 편이다(도면 12-②). 이 가운데 안쪽 면에서 지판이 확인된 사례는 함평 마산리 표산 1호분, 일본 미야자키현 모찌다 26호분 출토품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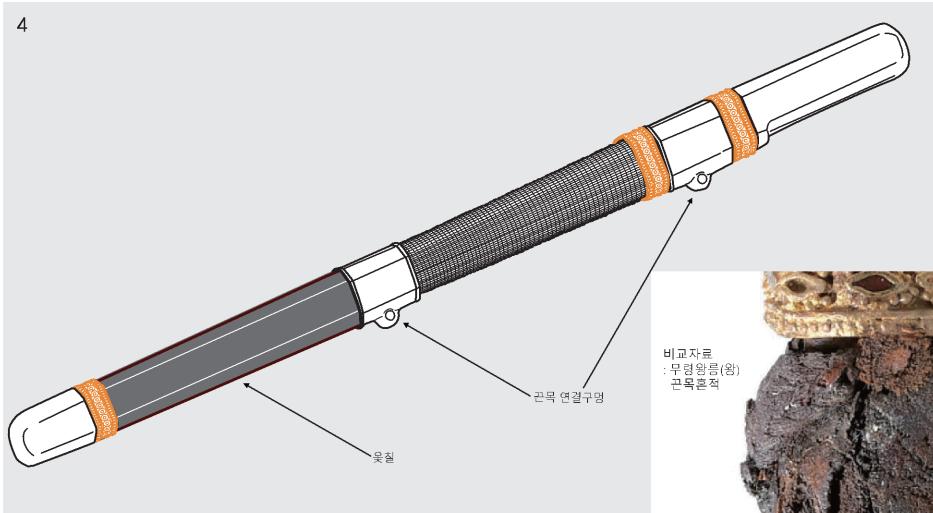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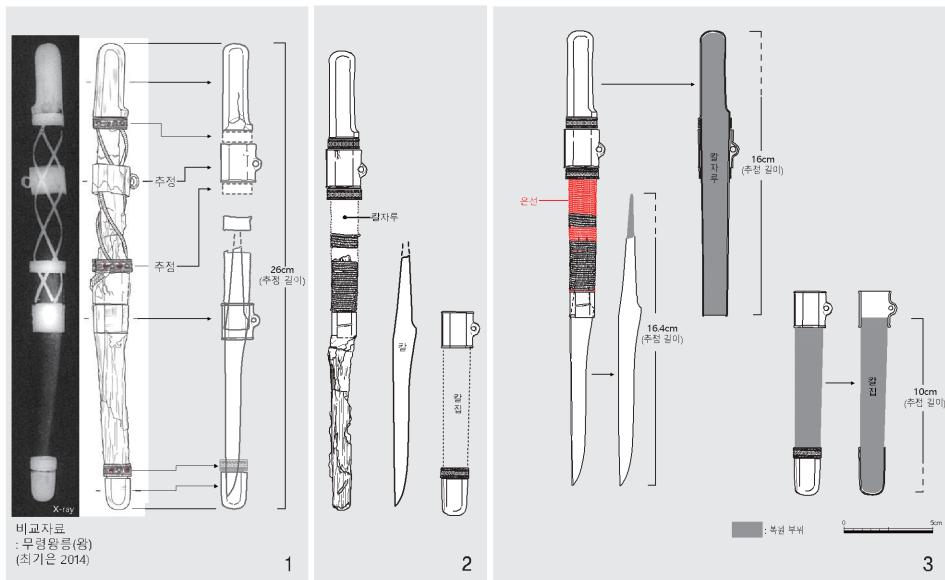
칼자루에 1줄의 은선을 촘촘하게 감은 사례는 공주 무령왕릉, 고성 송학동 IC호분 출토품이 있다. 이 장식소도들은 은선 상면에 병부금구·장식이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은선의 새김눈[刻目] 문양 형태와 유사한 사례는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B)에서 확인된다. 이 문양의 형태는 ‘정’을 이용하여 찍은 흔적과 구분되어 다른 방법으로 찍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복원과 재현품 제작

1. 복원도 작성

앞의 검토를 바탕으로 재현품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한 먼저 복원 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복원 안은 금구 배치와 간격 확인 → 금구 배치와 결실부위 확인 → 결실부위 복원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하였다(도면 13). 각 금구의 임시 배치도는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의 크기를 참고하여, 전체 길이를 26cm로 추정하였고 칼의 길이는 CT사진을 참고하여 남아 있는 14.2cm 이상으로 판단하였다.

복원이 필요한 칼자루의 금구 배치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1974, 2019년에 출판한 무령왕릉 보고서마다 병부금구의 위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위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간논야마고분에서 출토된 5점의 장식



[도면 13] 복원도 작성과정

소도는 병부금구 위치가 동일하게 확인되며, 이 금구는 작은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도면 12-①).

간논야마 고분 장식소도의 칼자루 금구 위치, 무령왕릉 병부장식의 위치를 참고하면 칼자루의 금구는 병두금구-병부장식(금고리)-병부금구-병부장식(금고리)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³⁾ 병부금구가 칼자루 중단에 위치하면 손으로 쥐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각 칼자루와 칼집의 복원한 규격과 금구 배치 등의 특징은 [도면 13]과 같다. 그리고 칼집 바깥쪽 면은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에서 확인된 옻칠 편과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 사례(최기은 2014: 43)를 참고하여 옻칠하기로 결정했다.

2. 재현품 제작과 주요 제작기법

[도면 13-④]와 같은 복원 안을 바탕으로 설계도를 작성한 다음, 장식소도를 제작하였다. 이번 재현품은 실제 유물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였다. 제작순서는 칼 → 금구 → 칼집 · 칼자루 → 조립 과정으로 진행하였다(표 4, 도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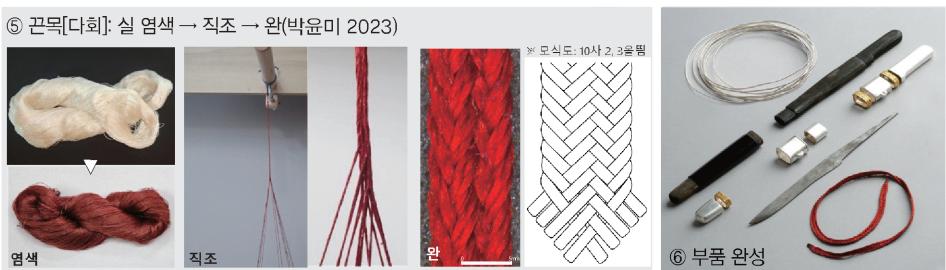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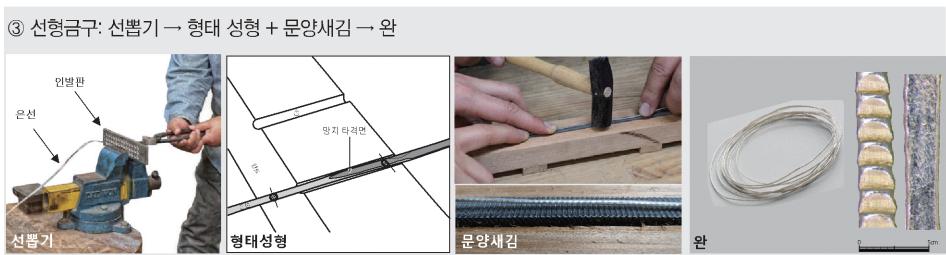
은제금구 제작은 다이포밍, 각접기, 선뽑기[인발], 프레스[형틀 찍기], 스템핑(문양)과 같은 금속 공예기법을 사용하였다.⁴⁾ 칼자루끝 · 칼집끝 고정금구는 다이포밍

[표 4] 재현품 제작 과정과 사용 기법

순서	제작 과정	제작 부위	주요 기법	비고
1	설계도 작성	-	-	
2	칼		(접쇠)단조, 담금질, 연마, 광쇠	
3	금구	칼자루 끝 · 칼집 끝 고정금구	다이포밍, 은땜, 연마 광쇠	
		칼집 고정금구, 칼자루 금구	각접기, 타출, 천공, 은땜, 광쇠	
		칼자루 고정금구	각접기, 은땜, 광쇠	
		선형 은선	인발작업, 스템핑(형틀작업), 문양(스탬핑)	
4	칼집과 칼자루	고리형	조금, 광쇠	
		-	형태성형, 조각, 옻칠	
5	조립		칼 → 칼집과 칼자루 → 금구 → 끈목 순 조립	끈목 의뢰

3) 한편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와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 · 왕비 A · B)의 병부금구가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비 C)와 같이 초구금구일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병부금구 내부와 주변에서 칼집과 관련된 자료(외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4) 금속공예기법에 대한 용어와 이해는 전용일(2015)의 글을 참고했다.



[도면 14] 주요 부품 제작과정과 광경

은 틀(다이die)를 이용해서 금속판을 입체적으로 성형하는 기법으로 양쪽 면의 형태가 동일한 2개의 반쪽을 만들어서 붙여 하나의 입체 형태로 만들었다. 형틀의 소재는 단단한 철이나 나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두꺼운 철을 파내어 가공하기에는 당시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단한 나무를 파내어 형틀을 만들고, 형틀에 놓은 은판을 정과 망치로 두드려서 반쪽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2개의 반쪽을 땜질하여 붙여 원통의 금구 형태로 만들었다. 마무리로 뚜렷한 윤곽을 잡기 위해 별도로 만든 모루에 금구를 끼우고, 망치 작업하여 복원품의 형태에 맞는 윤곽을 완성하였다(도면 14-①).

각접기는 판 1개의 접는 부위에 직선의 홈을 파고, 그 부위를 일정한 각도로 접어 각이 지는 형태로 제작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칼집 고정금구와 칼자루 금구의 제작에 적용하였다. 원래 유물의 은판에서도 접는 부위를 따라 안쪽에 일렬의 점을 찍거나 점선 상으로 홈이 남아 있어, 안쪽에 미리 점을 찍고 바깥쪽에서 접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판을 접어서 말은 다음, 판의 양끝을 은땀하여 접합했다(도면 14-②).

은선은 선뽑기[인발]와 프레스 작업으로 만들었다. 인발판으로 적정 굵기로 선을 뽑은 다음, 은선의 형태 성형과 문양찍기를 진행하였다. 실제 유물의 은선은 정으로 찍어서 문양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따라서 정을 이용한 수법이 아닌,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 방향으로 홈이 있는 줄(File, 공작도구)과 같은 일종의 형틀 위에 은선을 놓고 망치질하여 문양을 새겼다. 그 결과 유물과 같이 균일한 일자형 문양이 찍을 수 있었고(도면 14-③),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문양이 찍힌 면의 그 반대 면이 판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은선에 문양을 찍는 것과 동시에, 한쪽 면을 판판하게 만드는 작업(형태 성형)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또 정을 찍을 때의 은선이 뒤틀리는 상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금제 고리는 심재로 추정되는 부식물을 휴대용 금속 성분 분석기(Handheld XRF)로 확인하여 은으로 심재를 제작하였다. 금판에 문양을 새기고 접힐 부위를 남겨둔 채 잘라내고, 금판을 준비한 은으로 만든 고리(지판)에 씌워서 제작하였다(도면 14-④).

모든 금구는 바깥쪽 면을 연마하여 광을 내는 광쇠 작업하였다. 원래 유물에 남아 있는 연마 · 광쇠 방향과 같이 가로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타출된 고리는 그 주변을 연마하여 마무리하였다(도면 14-⑤).

칼집과 칼자루의 제작은 칼과 금구의 규격에 맞춰 자르고, 칼이 들어가는 내부를 파고, 바깥쪽 면을 깎아내었다. 그리고 칼집은 옻칠 8회, 칼자루는 방습 목적으로 2회만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칼과 칼집 · 칼자루, 각종 금구와 끈목을 조립하여 완성하

①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소도 재현품



③ 공주 무령왕릉(왕) 초구금구 추정
고리 위치



② 장식소도 비교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도면 15]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도자 재현품과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 재현품 비교

였다. 끈목은 무령왕릉 출토품을 참고하여 10사 2, 3을 뼘으로 직조한 끈목을 사용하였다(도면 14-⑥).

완성된 금구와 끈목을 조립하여 [도면 15-①]과 같이 완성하였다.

V. 고찰

1. 제작기법 비교와 제작 의의

완성된 재현품의 제작기법은 기존 연구(최기은 2014: 40~41)를 참고하여 [도면 15, 표 5]와 같이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와 재차 비교 검토하였다. 두 장식소도의 병두·초미금구에서는 끝을 말아서 접은 흔적이나 ‘十’자형 틈 병부·초미금구의 안쪽 점열은 통형의 금구는 각접기로 제작했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형태의 병두금구는 동일한 제작기법을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하여 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의 초구금구를 다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초구금구 하단에는 오목하게 눌려있었고, 그 부위에는 추정 땜질 흔적이

[표 5]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과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 비교검토

부품 부위		비교 대상	검토 대상	비교
형태	명칭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통형	병두·초미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쪽 면 접힌 부위 ■ 각접기 제작흔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접기 제작 가능성 	
	병부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부금구 고리 - 장식을 매달기 위한 용도로 추정 (국립공주박물관 2019: 72, 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도 병부금구 뿐만 아니라 초구금구에 고리가 있었을 가능성 제기 가능 	
	초구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고정금구 고리? - 오목하게 눌려 있거나, 땜질 흔적 확인: 고리가 떨어진 흔적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구 입구 쪽의 은띠 장식(유) 	
	참고: 금구 연마·광쇠방향	(도면 15 기준) 세로 방향	(도면 15 기준) 가로 방향	
선형	병부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금 ■ 2줄을 느슨하게 나선으로 감음 ■ 문양은 일자형 정으로 찍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은 ■ 1줄을 촘촘하게 감음 ■ 문양은 틈에 찍어서 제작(추정) 	
고리형	초부·병부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금 ■ 누금기법: 금알갱이 granule, 금선 filigree ■ 주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금(外), 은(内) ■ 찍기 stamping, 조금 engraving ■ 심재 有(은지 금장 추정) 	
칼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옻칠 ■ 단면형태: 팔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집: 옻칠 ■ 단면형태: 팔각형 	

남아 있어 은맵으로 불인 고리가 떨어졌던 흔적으로 판단되었다(도면 15-③). 따라서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의 초구금구에도 원래 고리가 부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령왕릉 1쌍의 고리도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와 같이 패용 또는 칼집과 칼자루를 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두 장식소도의 통형 금구에서는 은띠 유무와 연마·광쇠 방향과 금고리, 칼자루 은선의 제작방법도 공주 무령왕릉(왕) 장식소도와 차이를 보인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칼자루 은선의 제작방법은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와 같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재현품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과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장식소도는 같은 공방, 장인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유물의 세부형태와 소재 차이는 소유자의 지위, 제작자, 공방 혹은 제작시점 등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비교자료로 했던 장식소도들의 금구 위치·제작 기법을 재검토하여 원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 왕비 A·B) 병부금구와 장식의 원래 위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의 초구금구 고리 복원으로 나주 송제리 1호분, 일본 군마현 간논야마고분 출토품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칼집과 칼자루에 위치한 1쌍의 고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착용 및 사용이 어려워 패용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칼집과 칼자루를 연결하는 용도로 추정된다.

2.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의 제작시점과 특징

공주 무령왕릉 출토된 장식소도 4점 가운데 3점은 같은 양식을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이 장식소도는 병두·병연·초구·초미금구를 갖추고, 초부금구, 병부·초부 장식이 부가되어 있다. 또 칼에 비해 칼자루가 길고, 칼집이 짧은 편으로 당시 사용했음직한 가죽제 칼집의 전형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각 장식소도는 세부 장식과 각 금구 형태, 칼자루 선형금구의 소재 감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도 장식소도(왕비 B)의 칼집은 어린문이 타출된 은판으로 장식하고 있다. 몇몇 차이는 있지만 왕, 왕비 A·B 장식소도는 동일한 개념과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매장 순서를 고려하면 장식소도는 왕 → 왕비 A·B순으

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장식소도(왕비 A)는 금구 형태와 위치, 장식의 제작기법을 계승하되, 병두·병부·칼자루 은선 등을 보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장식소도(왕비 B)도 끈목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기존의 장식소도를 바탕으로 제작하되, 장식을 변형하거나 제작상의 편의 또는 불필요한 요소의 배제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과정 속에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과 가장 흡사한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는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B)보다 먼저 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매장 시점 차이를 고려하면, 두 유구의 장식소도는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제작된 사례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주 무령왕릉,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는 6세기 1~3/4분기 백제, 신라, 가야에서 유행하였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칼자루가 칼보다 길이가 길거나, 병부금구, 병부장식(금고리) 등 삼국 간 장식소도에 관한 정보가 교류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도면 4, 표 2). 한편으로 삼국시대에는 칼집의 길이를 기준으로 짧은 칼집, 긴 칼집으로 2가지 양식이 병존한다. 칼집이 긴 유형은 가죽 재질 등의 칼집에서 영향을 받아 제작된 개체로 판단된다. 이 유형은 칼집을 목제로 만들고 그 외판을 금속판으로 두르거나, 패용구를 부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은 7세기 백제 장식도자와 고려시대 장식도자에서도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본 재현품 제작과 관련 연구를 통해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의 특징에 관한 3가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병부금구와 초구금구 고리 1쌍은 공주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B·C)를 비롯한 다른 삼국시대 장식도자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유행했던 속성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두금구 형태와 제작기법이다. 공주 무령왕릉(왕)과 합천 옥전 M11호분 출토품만 확인되어, 이 유형의 병두 금구 유행은 매우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금구는 입구 쪽의 돌출부를 비롯하여 전체 형태에 있어 빼어난 조형감을 보인다. 제작방법은 본 재현품 제작과 같이 다이포밍 제작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형틀과 모루를 사용하여 여러 점을 제작한 양상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장인의 솜씨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각접기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작과정이 어려워 짧은 기간 동안 소수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6세기 1~3/4분기 동안 국가 혹은 정치집단에 의해 제작된 장식소도는 전통의 고유성을 계승하거나 발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라 문화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작되는 모자도 양식의 장식도자가 있다. 이와 함께 백제의 무령왕릉 장식소도(왕) →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소도 → 무령왕릉 장식소도(왕비 A · B)의 제작순서는 각 고유한 제작기법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개선했던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장식도자를 제작할 때 있음직한 사용자의 요청 혹은 제작한 장인의 재량 등 장인과 연관된 정치 · 경제적 후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고대 국가 정치권력과 장인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고려할 수 있다.

그밖에도 장식소도의 상호 유사성은 다른 지역 · 문화권 장식도자에 관한 정보의 파급과 그 정보를 입수한 배경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야의 고성 송학동 I C호분 장식소도와 백제의 공주 무령왕릉 · 나주 송제리 장식소도 간 유사성, 같은 모티브의 문양을 가진 금고리 형태의 초부 · 병부장식(도 12-②)은 장식도자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장식소도의 정보 교류는 실물 또는 장인의 이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장인의 이동은 일본 아스카사[飛鳥寺](588년) 창건을 위해 파견 된 백제 노반박사[露盤博士]와 와박사[瓦博士]의 역사적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장인이 직접 타지에 활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고대 국가 관계에 있어 정치적 필요에 의해 파견된 장인(전문가)들이 그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각종 공예기술 분야의 장인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의 새로운 공예품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VII. 맷음말

삼국시대 장식도자는 출토사례가 적고, 출토된 고분의 중요성에 비해 거의 연구되지 않은 유물이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를 재현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연구 사례가 적어,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재현품 제작을 계기로 추상적일 수 있는 복원 안과 제작기법에 대해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완성된 재현품을 토대로 무령왕릉 장식도자를 포함한 다른 삼국시대 자료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는 전형적인 백제 장식도자로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의 전형을 따라 제작하되,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비)와 같이 몇 가지 변화했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작순서는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비) 순으로 판단하였고, 공주 무령

왕릉 장식도자(왕)는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금구에서 관찰되는 1쌍의 고리 제작에 직접 영향을 준 장식도자로 상정하였다. 그밖에도 공주 무령왕릉 장식도자(왕)의 끈목 흔적으로 보아, 두 장식도자에서 확인되는 칼자루와 칼집 고정금구에 달린 1쌍의 고리는 끈목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1쌍의 고리는 현재까지 출토된 삼국시대 장식도자와 비교했을 때 꼭 필요로 했던 요소로 보기 어렵고 일찍 불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세기 전·후에 축조된 일본 군마현 간논야마고분에서 출토된 장식도자는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무령왕릉 장식도자를 비롯한 백제 장식도자와의 연관성을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이 장식도자는 일본 나라현 후지노키 고분과 후쿠오카현 하나미 고분 출토 장식도자(도면 16)와 같은 유형으로 인식하고, 일본에서 유행했던 장식도자로 보는 연구가 있다(藤村翔 2013: 323). 하지만 비교하고 있는 일본 장식도자에 남아 있는 패용과 관련된 구멍은 칼집에만 있다. 이 사례는 초부금구에 구멍 역할을 고리가 있는 간논야마고분 장식도자와는 구분된다. 오히려 간논야마고분 장식도자는 국내 공주 무령왕릉·나주 송제리 1호분 출토품과 형태·구조가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 간논야마고분 장식도자는 백제·신라적인 장식과 제작기법과 함께 독자적인 요소도 함께 확인된다. 이 장식도자는 당시 일본에서 장식도자를 제작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백제·신라 장식도자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여 독자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 속에서 공주 무령왕릉(왕)·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사례처럼 1쌍의 고리와 같은 기능이 부가되나, 이후 장식도자의 제작에서는 비실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주 송제리 1호분 장식도자의 재현품 제작을 계기로 삼국시대 장식도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삼국시대 장식도자는 각 문화권별 특징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각 제품의 예술적, 심미적, 기능적 차이는 장인의 기질 혹은 제작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 본고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22년에 실시한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의 장식도자 제작기술 복원 학술연구」 재현품 제작연구의 후속연구이다. 재현품 제작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이현상 선생님과 강민정 선생님이 맡아 주셨다. 본 원고의 작성과 수정에는 강민정 선생님, 일본 자료의 습득에서는 김우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강소영 · 권혁남 · 김소진, 2014, 「도자 탈락 편의 화학적 분석」,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공주박물관, 2019, 『武寧王陵』Ⅴ.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2, 『羅州 松堤里 占墳群』.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 _____. 2021, 『고려 금속공예의 이해』2.
- 권오영, 2005,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도서출판 동베개.
- 金洛中, 2006, 『6世紀 榮山江流域의 裝飾大刀와 倭』, 『나주 복암리 3호분과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김두철, 2011a, 『皇南大塚 南墳과 新羅古墳의 編年』, 『韓國考古學報』80,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1b, 『加耶·新羅 古墳의 年代觀』, 『考古廣場』9, 釜山考古學研究會.
- 김상현, 2014, 『금제사리봉영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金龍星,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例』, 춘추각.
- 김우대, 2012, 『韓半島 出土 圓頭·圭頭大刀의 系譜』, 『義城 大里里 2號墳』, 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 _____. 2020, 『일본열도 출토 모자대도의 계보와 의미』, 『나주 정촌고분 출토 모자도 제작기술 복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김준식, 2020, 『횡혈식석실로 본 소가야 지배층 묘제의 성립과 의미』, 『韓國考古學報』116, 韓國考古學會.
- 노대호, 2014, 『원삼국백제 한성기중서부지역 철도자 연구』, 『韓國考古學報』93, 韓國考古學會.
- 박윤미, 2015, 『고대 끈목의 특성과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보』15, 아시아민족조형학회.
- _____. 2023,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소도의 다회 복원에 관한 고찰』, 『나주 송제리 고분군 1호분 장식소도 제작기술 복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박천수, 2010, 『新羅 加耶古墳의 歷年代』, 『韓國上古史學報』69,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2, 『新羅·加耶古墳歷年代再論』, 『原三國·三國時代 歷年代論』, 학연문화사.
- 申大坤, 1998, 『裝飾刀子考』, 『古代研究』6, 古代研究會.
- 오동선, 2022, 『영산강유역의 백제 편입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禹炳喆, 2015, 『三國時代 裝飾大刀의 製作技術과 地域性』, 『韓國考古學報』96, 韓國考古學會.
- 우진영, 2023, 『백제 사비기 장경병(長劍瓶)의 등장 배경과 용도』, 『백제문화』6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한상, 2021, 『고성지역 소가야묘 출토 금공품 검토』,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삼강문화재연구원.
- 이현상 · 이혜연 · 오동선 · 강민정, 2018,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복원』, 『문화재』51-2,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용일, 2015, 『금속공예 방법』, 예술문화.
- 조대연, 2020, 『기술(technology)을 통해 살펴본 한국고고학의 다양성』, 『한국고고학에서 다양성의 이해』제4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조영제, 2009, 『考察. 3. 編年과 性格』, 『山淸 生草 M12 · M13號墳』, 慶尙大學校博物館.
- 최기은, 2014, 『제작기술로 통해 본 무령왕릉 출토 장식도의 제작지 검토』, 『百濟學報』12, 百濟學會.
- 최병현, 2017, 『신라 천기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계층성과 복식군』, 『韓國考古學報』104, 韓國考古學會.
-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 渡辺康弘, 1986, 『古代刀子の持について』, 『史觀』115, 早稻田大学史学会.

藤村翔, 2013, 「金の刀子と銀の刀子 -古墳時代後期における装飾刀子の展開と特質-」, 『立命館大学考古学論集』Ⅶ, 立命館大学考古学論集刊行会.

塚本敏夫, 2021, 「일본 갑주 복원제작의 보고와 활용」, 『고흥 야막고분 출토 갑옷 제작기술 복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Restoration Production and Review of Knives with Decorated excavated in Songje-Ri, Tomb No1, Naju.

Yi, Gun-Ryoung(Researcher, Na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ang, Min-Jung(Researcher,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oduction and review of Songje-Ri Tomb No.1, Naju(NSR), Knives with Decorated Restoration excavated from NAJU. The research process first summarizes the status of Knives excavation and observations using scientific analysis. Second, by comparing Knives produced in Three Kingdoms Periods, selection materials that were referenced in the production are presented. Third, the process and production of the restoration and design drawings. Fourth, the review of the completed Restoration and archaeological consideration were carried out in order.

NSRT No.1 knives are similar to those found in King Muryeong Tomb, Gongju(GKM) and Songhak-Dong Tomb No. IC, Goseong(GSD), Kannon-Yama Tomb, Gunma, Japan(J-KA). In particular, referring to the form of GKM(King) knives, the defective parts of the manufactured relics could be restored. Restoration production was completed by first making and assembling parts. The main production techniques used include Die Forming, Scoring, Drawing, and Stamping. The completed restoration was re-compared with GKM(King) knives.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GKM(King) knives also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re was a ring in the sheath fixing part as well as the sheath handle part. A pair of rings of NSR · GKM(King) and J-KA Knives are thought to be the basis for judging these knives in the same style.

Styles such as NSR and GKM(King) artifacts were judged to be objects that were popular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Knives excavated from the two historic sites were produced in succession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evaluated as data that could consider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for craftsmen at the time.

Key words : Three kingdoms, Knives with Decorated, Manufacturinng, Songje-Ri Tomb No. 1, Naju(NSR), King Muryeong Tomb, Gongju(GKM)

